

모실개 이칩조상본이우다.
 옛날 짐씨 할으방이
 과거보레 육지에 간
 중간 주막에서
 흉류밤 유숙^호게 되였수다.
 주막에서 흉류밤 유숙^호고
 붉는날은 과걸 보완
 돌아오는디.
 주막에서 만난 이씨할망이
 할으방 조롬에 종가가난
 할으방은 양반의 처제에
 드랑 올 수 엇언,
 심는 창웃섶을 털뜨리난
 이씨할망은
 대홍단 저고리 골름을
 그차 맷기난.
 그게 짐씨할으방은 활 내연,
 훈디.
 할망이 지주절섬^끼지
 들란 오랐수다.
 그 뒷해에 이씨할망은
 빙난 죽어신다.
 훈 해엔 짐씨할으방이 아판,
 어딜 간 문점을 흉난
 “이씨할망이 들언 조애우댄”
 흉난,
 그게 이칫조상으로
 우망^호게 됩네다.

<제주시 건입동 남무 76세 이달춘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96-697.